

산불피해 도움의 손길

# GS리테일, 1만 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 지원

행안부와 협의해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등 전달

GS리테일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1만 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로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산청군 등 총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여행용 세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피해



GS리테일 직원들이 산청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지역 주민은 물론, 화재 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구호 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23일 산청 및 의성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GS25 대구·경북 경영주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는 뜻을 보냈다. GS리테일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박경량환경·사회·지배구조(ESG) 파트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경영주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하루빨리 피해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한국엔컴퍼니(주) 신임 대표이사에 박종호 사장 선임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주)가 박종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사진)로 선임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26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박종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소진공, 노조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노동조합과 함께 대전시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린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에 참여했다. 이날 소진공 임직원들은 왕벚나무 등 나무를 심는 활동과 묘목·꽃모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썼다.

/소진공



### 중기중앙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서' 2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엔 선발한 8명의 서포터즈는 7월까지 4개월간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가운데)이 서포터즈 참여 대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카카오, 긴급 모금캠페인에 120만명 동참

기부금 50억 이상 모여

카카오가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동참했다.

카카오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도 이용자 응원 댓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는 등 총 10억원을 기부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카카오같이가치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함께 기부금 조성을 위해 긴급모금함을 개설했다. 모금 소식은 이용

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4일 만에 1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용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인 모금액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 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 및 생계 지원금으로도 사용된다.

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금액을 직접 기부하거나, 응원 댓글을 작성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긴급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면 카카오가 1건당 1000원을 기부하고, 개별 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100원을 기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피해복구에 2억 기부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인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이사는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호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한일시멘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기탁

한일시멘트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27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기부한 성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 운

영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국광고총연합회, 임대기 신임회장 선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등에 힘쓸 것”

임대기 전(前) 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27일 한국광고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대기 신임 회장은 삼성전자 구조조정본부 전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홍보팀 부사장을 거쳐 제일기획 사장, 삼성라이온즈 대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임대기 신임 회장은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 광고 환경 속 어려운 시기”라며 “광고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광고 생태계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고총연합회가 중심축으로서 소통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

## 에듀윌-HY 교육, 지역인재 유입·정착 도모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맞손’

에듀윌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HY교육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대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과 취업 연계로 지역 인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HY교육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학생들의 한국 대학 진학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해외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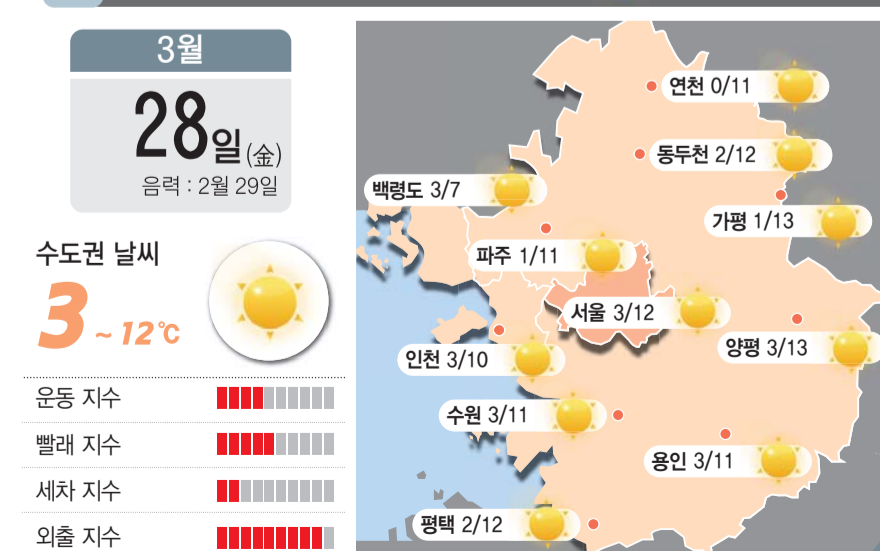
협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국내 지역에 해외 대학생을 배치함으로써 실제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2026년 9월부터 매년 1000여명 규모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남 에듀윌 대표는 “해외 대학생 유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HY교육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오늘의 날씨



### 인사

◆법무부 ◇서기관 승진 △소년보호과 안규용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 부음

▲전소순(향년 75세)씨 별세, 김형진·김형선씨 모친상, 이영기(헝커코리아 대표)씨 장모상 = 27일 오전 4시26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787-1503

### SK엔무브 '지크', K-BPI 27년 연속 1위

SK엔무브의 윤활유 브랜드 '지크'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엔진오일 부문에서 2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K-BPI는 1999년부터 국내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지크는 K-BPI 발표 첫해부터 올해까지 줄곧 엔진오일 부문 1위를 유지해왔다. /SK엔무브